



언메디컬 디스코 Unmedical Disco

탈영역 우정국 2026.05.12~05.17

언메디컬 디스코 Unmedical Disco, 탈영역 우정국

2026.05.12~05.17

전시와 연극이 연계된 프로젝트입니다.

전시는 예매 없이 무료입장할 수 있으며, 연극은 플레이 티켓을 통해 예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평일 13-18:30 / 주말 전시 10:30-14:00

연극: 평일 19시 30분 / 토요일 15시, 19시 30분 / 일요일 15시

연극 및 관객참여형 설치 미술

본 프로젝트는 전시 공간을 '치유의 병원'이 아니라 '불치의 클럽'으로 과감하게 전복합니다.

기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나 전문가 주도의 자조 모임이 지닌 한계를 넘어, 전문가의 진단 대신 리듬을, 약물 처방 대신 춤과 몸짓을 주요한 소통의 도구로 삼습니다.

관람자는 정적인 관조를 넘어 작품을 직접 만지고 변형하는 적극적인 참여 과정을 거치며, 사회가 강요한 정상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해방적인 감각을 경험합니다.

팀 소개

팀 <젊은 TGNC의 슬픔>은 다음세대 재단의 후원을 받아, 퀴어와 신경다양인 정체성을 '치유'나 '극복'의 언어로 다루는 기존 담론에 균열을 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신의학, 심리학의 언어는 퀴어한 몸을 '진단 가능한 증상'으로 포착하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병리적 위치로 내몰아 왔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통치의 시선에서 벗어나 '비의료적(Unmedical)'인 관점에서 정체성을 재조합하는 미학적 시도를 전개합니다.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자(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이하 TGNC)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을 개인의 심리적 결함이 아닌 사회 구조적 억압의 결과로 재정의합니다.

팀원 : 김지연, 김나영, 주보배, 허윤, 류시향, 주보배, 김유진

연극 소개

연극 <Hysteric cake>

벗어던지고 싶은 옷과 같은 몸에 대하여

시놉시스 : 완벽한 아들이자 연인이었던 주열이 죽었다. 주열의 엄마 영주는 주열과 닮은 아들의 연인 도연에게 기묘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다. 한편, 군대를 전역한 경태는 지저분한 원룸에서 홀로 말라 죽어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경태의 방문을 두드린다.

러닝타임 85 분

티켓부스 오픈: 공연 시간 30 시간 전

하우스 오픈: 공연 시간 30 분 전

배우 : 정주호, 정하나, 이치호

스태프 :

음향 윤지원 / 조명 김현수, 박유미 / 연출 김지연, 류시향 / 각본 주보배 / 홍보 허윤 / 기획 고이현, 김유진, 이예진, 천유진

*원활한 공연 준비를 위해 상연 시간 1 시간 전부터 하우스 오픈까지 30 분 간 공연장 출입을 금합니다.

(평일 18:30-19:00, 주말 14:00-14:30)

전시 소개

‘몸’은 ‘우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 긍정 대신 불안과 수치심으로 오래 덧입혀진 몸이 이곳에 있습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듯, ‘나’는 ‘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의 몸과 몸은 서로의 곁을 맴돕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도, 완전히 겹쳐질 수도 없는 몸과 몸은 오직 느낌으로만 감각되는 미세한 떨림 속에 놓입니다. 이 떨림 속에서 몸은 진단과 치료가 필요치 않는 존재로 재정의됩니다.

규정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그래서 더는 불필요한 이름이 붙지 않는, 우리만의 새로운 몸짓, 그 새로운 궤적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The Cube

고이현, 30 × 100 cm, 폼보드에 프린트, 아크릴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 세(혹은 네) 인물이 있다.
그들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의 움직임에 따라 서로 다른 성별, 다른 주체, 다른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주된다.



당신은 그들이 어떠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가,
또한 당신은 어떠한 상태로 세상에 존재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타자를 향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존재 방식을 되돌아볼 것을 도모한다.

진료실

김유진, 테이블, 디스코볼, 음향 등 혼합 매체

정상은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며, 유지되고 소비되는 것에 가깝다.
정상이 되기 위해 커피와 약, 알코올과 니코틴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속도를 맞추며, 사회에 적합한 몸으로 조율된다.
이 작업은 규정과 통제의 공간인 '진료실'을
디스코적 이미지로 재해석해,
이성애 중심의 규범적 질서가 규정해온
'정상적인 몸'과 '정상적인 감각'을 해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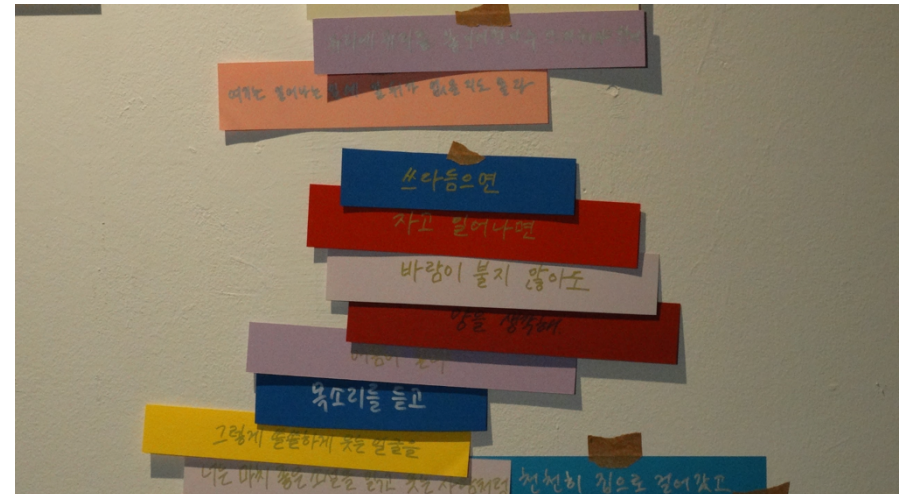
피부

이에진

잠든 사람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대면.

잠깐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비어 있는 괄호에는 듣고 싶은 말을 적을 수 있다.
문장들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글은 완성된다.



폐급

천유진, 솜, 플라스틱, 비닐 등 혼합 재료

우리는 폐기해야 할 만큼 상태가 나쁜 것들, 혹은 규격에 맞지 않아 탈락한 존재를 ‘폐급’이라 부른다. 이 작업은 그 비하와 자조의 언어를 뒤집어, 불결하고 위태로운 것들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아늑함에 주목한다.

이때 ‘폐급’은 대상이 아니라 몸이 머무는 상태이자 공간이 된다. 불결함과 안락이 뒤엉킨 환경 속에서 몸은 바깥을 밀어내기보다 스며들며, 그 경계를 서서히 잃어간다.



불치의 클럽

사운드 : 윤지원

기획 : 언메디컬 디스코

정신의학, 심리학의 언어는 귀여한 몸을 ‘진단 가능한 증상’으로 포착하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병리적 위치로 내몰아 왔다. 디스코와 의사의 목소리, 전시 큐레이션을 하나로 합쳐 전문가의 진단 대신 리듬을, 약물 처방 대신 춤과 몸짓을 주요한 소통의 도구로 삼는 공간을 제시한다.

